

현장시선



오 애 리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제주지역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스마트 아일랜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정과 공존의 스마트 국제자유도시'라는 발전 계획에 따라 제주도민 삶의 질과 안전 향상 추구, 정정과 공존의 핵심가치 공간 구현, 혁신·스마트·평화 가치가 반영된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란 목표를 세우고 제주특화형 산업생태계 구축과 제주형 스마트 아일랜드 구현이라는 발전방향이 제시됐다. 제주지역을 발전시킬 미래 산업으로 블록체인, 빅데이터 센터를 통한

민·관 협력 기반 스마트시티 구현, 제주권역 내 스마트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제주형 4차 산업의 선도 추진 근거가 국가계획에 반영됨으로써, 각종 신성장 동력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제주 미래 산업 중 스마트 인프라 확충이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로 발전한 다양한 유형의 전자적 데이터 수집 센서를 사용해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통해 자산과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생활 속 에서 유통되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주거 문제, 시설 비효율 등을 해결하고 도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는 201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7~10월, 약 4개월 간 도내 농경지를 2차에 걸쳐 드론

으로 활영해 고정밀 영상데이터를 확보하고 농작물의 재배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산물 수급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또한, LX 제주지역본부는 2018년 6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원기관으로 지정된 후 작년 도내 유관기관과 협력해 빈집의 실태를 파악 후 빈집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협력했다.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도시재생과 주택정책 수립에 협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LX 제주지역본부는 2020년 스마트시티 구축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관련 사업은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기초조사사업', '국가지점번호 검증사업', '학교 재산관리시스템 공간정보구축 사

업', '지역재조사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UAV활용 사업', '침수흔적도 작성 업무' 등이다. '스마트시티 구축 사업'을 통한 정확한 위치 기반의 지적정보인 '디지털 지적정보' 위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결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 성장의 플랫폼이 될 미래도시의 모델을 설계했다. 이는 정밀한 3차원 공간정보 기반 위에서 지역의 각종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움직이는지를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정책방안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향후 LX 제주지역본부에서는 도내 미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사 내에서 공간정보 전문가를 양성 중이며 제주 스마트 아일랜드의 발전 방향을 제안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사설

제주경제 피해 현실화, 도 적극 대응 아쉽다

제주경제가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에 처했던 지역 경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앞선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는 제주 관광에 직격탄이 됐던 2015년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2017년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는 사정이 다릅니다. 당시는 외국 관광객의 빈자리를 국내 관광객이 차지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내외적 상황은 더욱 급박합니다. 외국인도 물론 내국인 관광객마저 줄면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제주지역 무사증 발급제도가 일시 중단되면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은 하루 100명 선에 불과합니다. 내국인 관광객도 40% 넘게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앞으로도 전망은 우울하

기입니다. 수확여행 등 관광성수기인 4-5월 단체관광은 여행취소로 전무한 상태라고 합니다. 개별 관광객 역시 평년과 비교해볼 때 항공권 예약률이 20-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비심리마저 얼어붙으면서 호텔 등 숙박업소들이 공식적으로 휴업을 신고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니 어려움에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는 비상상황입니다. 관광, 숙박업소는 물론 식당가와 재래시장, 편의점 등 소상공인들에게까지 연쇄적으로 미치면서 그 파장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국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아쉽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주도의 대응은 너무나 안일합니다. 다른 지역은 진작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말로만 위기라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을 점검하고 실제 피부에 와닿는 대응책을 서둘러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 손놓은 경로당이 불안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로당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사랑방인 경로당이 신종 코로나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대한 신종 코로나 관련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 등에 따르면 도내 경로당은 제주시 295곳, 서귀포시 149곳 등 모두 444곳입니다. 등록된 회원 수는 4만50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경우 관내 경로당 등에 손 소독제와 예방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의 평균 나이가 75세 이상 고령인 탓에 신종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낮고 예방수칙 등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경로당에 대한 본보 취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제주시내 한 경로당은 책상 위에 손 소독제(2개)가 놓여있을 뿐

실상 방치돼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노인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주시내 또 다른 경로당 한칸에는 손 소독제가 비치됐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잘 모르겠다"는 한 경로당 이용자의 말에서도 신종 코로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알다시피 신종 코로나는 사람을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모이는 곳이 감염병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 비치된 손 소독제도 제대로 이용하지 않아 감염병 예방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에 대한 예방교육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경로당 운영을 당분간 폐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타인과의 접촉을 가능한 줄이는 것도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열린마당

기초질서, 혼디 고쳐고쳐 만들어가게 마심



한 재 영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부읍장

기초질서지킴이 운동을 추진한지 3년째를 맞고 있다. 시민들의 노력으로 각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깨끗해진 클린하우스 주변, 불법주정차 감소, 집 앞 적치물 제거 등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제주시는 올해도 시민의 힘으로 바로 세우는 행복도시 구현을 목표로 환경질서, 교통질서, 도로질서, 3대 분야 중점 추진을 통해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한다.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성숙한 주·정차 문화 정착, 물건 적치 방지로 도로 사유화 행위

근절을 중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구좌읍에서도 이에 맞춰 기초질서 지키기 정착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자 한다. '기초질서지킴이, 혼디 고쳐고쳐 만들어가게 마심'을 비전으로 봄을 다시 한번 일으킬 계획이다. 자생단체별 과제 발굴과 실천 결의, 분야별 운동 전개 등을 통해 일회용품 안쓰기,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및 불법투기 안하기, 주변 주차장 이용 및 걸어서 이동하기, 인도·횡단보도 위 주·정차 안하기, 상가·내 집 앞·도로 위 물건 적치 안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지킬 수 있는 사항들은 적극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구좌읍에서는 '구좌읍 기초질서지킴이 리본'을 만들어 옷에 달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이 동참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준비 하고 있다. 기초질서지킴이, 이웃에 대한 배려이자 더불어 사는 지혜이다.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 혼디 고쳐고쳐 만들어가게 마심.

뉴스-in

제주도, '신종 코로나' 브리핑 '열일'

도청 기자회견 '복적복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도민들에게 일일 상황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합동 브리핑이 6일로 8일째에 이르는 가운데 제주도청 기자회견은 공무원과 취재진으로 늘 인산인해, 특히 브리핑에 따른 질의응답에 대비해 도민안전실을 포함한 해당실 관계자들이 오전 11시 직전 기자회견로 몰려들면서 언론 취재 못지 않게 도의 브리핑 준비도 열기. 하지만 브리핑 때마다 '대이동'이 반복되면서 "접촉이 잦아져 없던 병도 생기겠다"는 웃픈 얘기로 인해 반감. 조상윤기자

를 결정하기 위한 국·과장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 한 간부는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최하는 것이 옳지만 도민안전을 위해서는 취소하는 것이 좋다"며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하면 다음주 중에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설명. 고대로지자

제주외고 전환 공론화 관심

○...오는 2025년까지 일반고로 바뀌는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전환 모형이 공론화를 통해 검토되는 가운데 절차와 방향이 어떻게 정해질지 관심.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7일 교육청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공론화 2호 의제인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과 관련한 세부 의제와 공론화 방법을 구체화할 예정. 교육청 관계자는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와 "읍면지역 비평준화 일반고" 외에 다른 모형을 포함할지 논의할 것"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 김지은기자

들불축제 개최 다음주 결정

○...제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도민감염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2020 제주들불축제' 개최 여부를 놓고 고심. 고희범 제주시장은 6일 들불축제 준비상황 1차 보고회에서 들불축제(3월 12-15일) 개최 여부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회 어머니 청주한씨 정순(향년 93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0년 2월 7일 송윤규 며느리 김지윤 송윤원 이경희 송윤선 라은미 송복선 송복향 송복성 사 위 최순식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릉2리 용암동글게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열린 기술 습득 기술인력 개발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 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CCTV 및 공정 설비공사 ▶통신전주건설(가임자부담공사) ▶네트워크 설비공사 ▶전관방송 설비공사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건계분판매 친환경 및 HACCP인증 농장 •발효기(콤포스트)로 열처리 발효시켜 완전 건조된 친환경 계분을 판매합니다. •펠릿으로도 가능합니다. - 제주 전지역 배송가능 - 제주초록영농조합법인 문의 : 010-3693-2000, 010-2696-987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하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